



사랑과 평화 “46년 밴드 케미 보여드리죠”

10월 서울서 단독 공연 ‘펑크 콘서트’

“펑크가 뭐냐고요? 바로 가식 없이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음악입니다. 무대에서 마음껏 노는 자유 그 자체죠.” (이철호)

밴드 사랑과 평화는 ‘장수’라는 수식어가 꼭 따라다닌다. 이들은 국내에 펑크 사운드를 도입해 큰 인기를 누린 1978년 ‘한동안 뜬했었지’ 이래 1979년 ‘얘기할 수 없어요’·‘장미’, 1988년 ‘울고 싶어서’, 1989년 ‘삼푸의 요정’ 등 1970~80년대 가요계에 굶직한 획을 그은 히트곡을 잇따라 배출했다.

2014년 9집 이후로도 지난해 MBN 밴드 경연 프로그램 ‘불꽃밴드’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관록과 열정을 자랑하고 있다.

오는 10월 6일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단독 공연 ‘펑크 콘서트 (Funky Concert)’를 여는 사랑과 평화 다섯 멤버를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만났다.

밴드의 리더(보컬·퍼커션)이자 맏형 이철호는 “1970년대 사랑과 평화는 개개인의 음악적 실력이 뛰어나 연주 실력이 좋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연주하는 ‘합의 맛’이 단단해졌다. 나는 지금이 더 좋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철호는 사랑과 평화의 전신으로 미8군에서 활동한 ‘서울 나그네’에서부터 활동하다 1집 녹음에서는 빠졌다. 그는 1992년 5집부터 합류해 지금까지 밴드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46년 역사를 자랑하는 밴드의 시작과 현재를 모두 지켜본 셈이다.

그는 “1970년대 사랑과 평화는 너무 획기적인 부분이 많았기에 (현 멤버들이) 가려져 있는 게 많았다”며 “이제야 그걸 조금 넘어섰다”고 말하며 뿌듯해했다.

사랑과 평화, 그야말로 록 정신의 근간인 ‘러브 앤드 피스’ (Love and Peace)를 팀 이름으로 삼은 것은 2010년 작고

1978년 데뷔 ‘한동안 뜬했었지’ 등 히트 이철호·이권희·박태진 등 현역 활동 “솔 펑크, 음악적 기반...에너지 넘칠 것”

한 베이시스트 이남이의 아이디어였다.

“이남이 형님이 없었으면 사랑과 평화라는 팀이 유지가 안 됐을 겁니다. 형님이 ‘음악으로 사랑과 평화를 하자!’는 뜻에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 후보 가운데에는 ‘홍길동’도 있었답니다. 하하.” (이철호)

이철호는 “이남이 형님은 철학적인 면도 상당히 있었다”며 “우리 음악을 하지 않고 서양 음악만 카피하면 ‘너희 음악 하나 없이 웬승이처럼 남의 음악만 흉내 낸다’고 질책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1970~80년대 활동하던 멤버들은 팀을 떠났고, 현재는 이철호를 비롯해 이권희(키보드), 이혜준(기타), 박태진(베이스), 정재욱(드럼)이 현역 멤버로 활동 중이다.

이철호는 “지금도 ‘장미’를 연주하면 초등학교 때 따라 부르던 장면이 떠오른다. 묘한 감정과 더불어 시간 여행을 가는 느낌이 든다”며 “내 몸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도, 느낌과 감정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음악의 대단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사랑과 평화는 이번 단독 콘서트에서 솔과 펑크 분위기가 작렬하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사랑과 평화는 팬들이 애태게 기다리는 신작도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싱글 혹은 앨범 같은 음반 형식이나 발매일은 정해 두지 않았지만, 멤버들이 만든 노래를 모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철호는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은 여전히 솔 펑크이기에, 솔 펑크 신곡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작품이 정규 10집이 됐든 싱글이 됐든, 신곡이 사람들에게 확 각인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큼니다.” (정재욱) /연합뉴스

처가 바로 솔 펑크”라고 강조했다.

멤버들이 팀의 과거에만 묻히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은 것은 지난해 방송된 ‘불꽃밴드’다. 이들은 여전히 녹음도 않고 예리한 연주 실력과 이철호의 단단한 보컬과 무대 매너로 시청자의 호평을 끌어냈다. 남녀노소 아는 이들의 히트곡은 방청객들의 흥을 더욱 돋웠다.

박태진은 “첫 녹화 현장에서 우리 팀이 소개될 때는 환호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런데 회차가 넘어갈수록 박수와 환호 소리가 커졌다”며 “TV로 보신 분들도 우리 팀의 힘이 좋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희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재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진은 초등학교 시절 당시 히트한 ‘장미’를 교실에서 따라 부르던 소년이었다. 수십 년 뒤 자신이 그 노래를 연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박태진은 “지금도 ‘장미’를 연주하면 초등학교 때 따라 부르던 장면이 떠오른다. 묘한 감정과 더불어 시간 여행을 가는 느낌이 든다”며 “내 몸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도, 느낌과 감정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음악의 대단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사랑과 평화는 이번 단독 콘서트에서 솔과 펑크 분위기가 작렬하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사랑과 평화는 팬들이 애태게 기다리는 신작도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싱글 혹은 앨범 같은 음반 형식이나 발매일은 정해 두지 않았지만, 멤버들이 만든 노래를 모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철호는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은 여전히 솔 펑크이기에, 솔 펑크 신곡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작품이 정규 10집이 됐든 싱글이 됐든, 신곡이 사람들에게 확 각인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큼니다.” (정재욱) /연합뉴스

푸치니 ‘나비부인’ 광주서 날개짓

광주오페라단, 서거 100주년 기념 23~25일 광주예술의전당서 공연



광주오페라단이 ‘나비 부인’을 리허설하는 장면 (광주오페라단 제공)

푸치니의 역작 ‘마담 버터플라이’는 강렬한 인물들과 감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애인 핑커튼을 사랑하는 주인공 초초상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순애를 떠올리게 한다.

올해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광주오페라단이 ‘나비 부인’을 오는 23~25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23일 오후 7시 30분, 24일 오후 3시, 7시 30분, 25일 오후 6시 진행.

일본의 나가사키항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작품은 주인공 초초상(나비부인)의 애인인 해군 장교 핑커튼과의 서사에 주목한다. 핑커튼은 나비부인을 속이고 결혼 후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나비 부인의 삶은 고독과 소외로 점철돼 있다. 초초상은 자신을 찾지 않는 핑커튼을 끝까지 기다리며 신념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총감독은 김기준이 맡았으며 김병무가 지휘봉을 잡는다. 클라리넷 오케스트라, 화순어미합창단 등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공연장을 수놓을 예정이다.

나비부인 역은 김선희·이환희·나혜숙·정별님이 맡았으며 핑커튼은 이상화·김정규·고규남·신연석 배우가 열연한다. 이외 샤프레스(정호석 등), 스텔라(최은정 등), 고로(신동민 등), 본조(정주도 등) 외 다수 배우들이 출연한다.

광주오페라단 김기준 총감독은 “푸치니 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오페라 ‘나비부인’은 그 멜로디와 작품성에서 비극성을 보여주는 초초상의 강렬한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라며 “작품 절정에서 나비부인의 희망이 깨어지고 나비처럼 날아가는 장면 등은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고 했다.

A석 3만5000원, C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김,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석당화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탁판매
대표 이석화 ☎ 062)222-3118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이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물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굵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정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탁임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평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명, 출생, 탁임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 김기범 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로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네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